

임실군, '역대급 무더위' 잡는다 건강 현미푸드 산업 육성 탄력

폭염 대응 T/F팀 운영 등 종합대책 본격 가동

임실군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해 폭염 상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근무 체계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 이상에서 발효되는 '폭염중대경보'를 비상대응 체계에 반영해 단계별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군은 폭염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

중할 방침이다.

군민들의 무더위 피난처 역할을 하는 무더위쉼터 운영도 확대한다.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334개소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시설 점검을 완료했으며, 열대야에 대비해 기존 오후6시까지 운영하던 쉼터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민 체감형 폭염저감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도로와 교차로 등에 그늘막 22개소(고정형 10, 스마트형 11)를 운영 중이며, 이달 중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의 폭염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작업도 추진한다. 군은 살수차 5대를 임

차해 읍·면 주요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집중 살수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더위를 완화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 6,253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복지시설에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을 비치하고 생활밀착형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폭염 상황에 따라 살수차 운영 구간 확대와 폭염예방 물품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해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국 위해서서 '순창장류축제' 관광설명회 열려

순창군이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 중국 현지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순창군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산둥성 위헤시를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관광설명회와 현장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순창장류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순

창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일 위헤시에서 열린 관광설명회에는 위헤환경국제여행사, 산둥동영국제여행사, 진화국제여행사(북경) 유한회사 산둥지사, 중국국제여행사 위헤지사, 산둥항신국제여행사, 석도국제항운 등 위헤지역 주요 여행사 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컨텐츠인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발효마을 1997, 세계인 순창장류축제 및 순창 관광 홍보활동 등 순창만의 차별화된 축



제 콘텐츠 소개했으며, 순창발효테마파크와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군산~석도 국제항로를 이용하는 승선객과 중국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및 순창 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서울국제관광전서 관광 매력 홍보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운숙)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순창만의 특장적인 발효 문화와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41회를 맞은 서울국제관광전은 세계 각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다. 재단은 이번 관광전에서 순창군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순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홍보부스는 전주시, 남원시와 협업해 운영되며 눈길을 끌었다.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퀴즈 및 톨렛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는 상생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구강건강 캠페인' 확대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9일 '제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해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인식 제고와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을 위해 전통시장·대형마트로 구강건강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齲)로운 노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역안전지수 감염병 분야의 주요 의식지표인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최근 3개년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하주발효마을 영농조합법인,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 대상자 선정

남원시가 남원하주발효마을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성희)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2026년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8억 원, 자부담 6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추진되며, 남원시를 대한민국 대표 건강 현미푸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발효 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렁농법 현미쌀을 활용해 제빵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준업체로, 현미 프리믹스 개발을 통해 맛과 소화력을 개선한 건강 쌀빵을 선보이며 당뇨질환자와 건강식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생산시설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수요에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남원 우렁쌀(현미)을 활용한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남원 현미 브랜드화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등 가공·유통·소비·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 모델로서 지역 특화산업을 육

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농민, 가공업체, 외식업체, 관광업체, 판매자 등이 참여하는 '남원 현미푸드 연합' 구성을 통해 상생 협력체계를 만들어 생산시설 구축 후 현미 프리믹스를 지역 제빵·제면 소상공인에게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제분시설은 소정의 사용료로 개방하는 등 지역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2031년까지 매출 277억 원(직접매출 83억 원), 고용창출 277명, 관광객 유입 52만 2천 명, 지역 농산물 활용 61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농민 30명, 지역 소상공인 16개 업체, 예비창업자, 지역 중·고등학교, 수도권 권슈머 등이 참여하는 '남원현미 미식사업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원물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함으로써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6일 제7회 현충일을 맞아 순창을 제일고등학교 내 충혼불멸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순창군, 제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순창군은 지난 6일 제7회 현충일을 맞아 순창을 제일고등학교 내 충혼불멸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순종식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

린 사이렌에 맞춘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추모 헌시는 제일고등학교 2학년 서혜규 학생이 낭송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한편,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오찬이 마련돼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수천·지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임실군은 최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덕면 수천리 324필지 10만6,625.3㎡의 토지와 신덕면 지장리 360필지 15만8,300.0㎡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결정된 것이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640-258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추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보건소 예방접종 참여 당부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수두는 봄·여름철(4~7월)에 유행하는 특성이 있어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및 중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수두는 발열과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진이 발생하고 최소 5일간 전염력이 유지되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두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완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휴지나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